

시장 바뀌었다고... 잊혀지는 광주 U대회

사업비 잔액 412억... 선수촌 사용료 분쟁에 레거시 사업 손나 수영대회 사업은 활발... "전임 시장이 개최해 소홀한 것 아니냐"

2015년 광주를 뜨겁게 달궜던 '광주 유니버시아드(2015년 7월 3일-14일-이하 U대회)'가 잊혀지고 있다.

국제 스포츠대회 성공 개최 경험을 각종 유산사업(레거시사업)을 통해 기억하고 도시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은 대회 폐막과 함께 활발하게 논의되었지만 선수촌 사용료 산정을 둘러싼 길고긴 소송이 이어지면서다.

반면 올 여름 광주에서 개최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사업은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 사업 등 3가지 이상으로 최소 5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상대적으로 추진된다. 일각에서는 U대회가 올림픽, 세계수영대회와 함께 '세계 3대 메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히는 데도, 광주시가 수영대회 기념사업에만 올인하는 데 대해 '전임 시장 시절 개최된 대회'라는 점에서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레거시사업으로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사업, 전국규모 수영대회 창설, 선수 육성 등 3가지 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490억원 규모로, 내년도 국비 예산에 설계비 6억원이 반영됐다. 전국 규모 수영대회 창설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10억원 규모로 대회 운영비 5억원 전액이 국비 반영됐다.

반면 U대회 레거시사업은 제대로 추진되는 게 없다. 대회 폐막 이후 한때 광주 유니버시아드 재단 설립 등이 검토됐으나 올 스톱 상태다. U대회 선수촌 사용료 법정 분쟁 장기화로 U대회 수익금 정산작업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레거시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 의지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수백억원을 들여 추진되는 세계수영대회 유산사업과 달리 U대회 기념사업은 '소송로 법적 분쟁 장기화'를 이유로 내세우며 사실상 손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발표한 광주시 체육진흥 5개년 계획에서 "광주 하계 U대회, 세계수영대회 등 국제 스포츠 대회 유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이다.

광주 하계 U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조직위 사업비 잔액은 현재 412억원으로, 사용료 소송 확정 판결 이후 사용료 지급 등 수익 정산을 하게 된다. 이후 조직위(재단) 청산 과정에서 남은 수익금은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가 기여도 평가 등 협의를 거쳐 나누게 된다"며 "청산 후 수익금이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레거시 사업을 확정짓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 역시 "사용료 분쟁 종식 후 광주시로 분배될 수익금이 확정된 이후 하계 U대회 레거시 사업을 검토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화정주공 재건축 조합이

발이는 U대회 선수촌 사용료 법정 소송은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지면서 5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조합 측은 광주시가 선수촌 사용료 46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광주시는 광주하계U대회 선수촌 건립 협약서를 근거로 36억원을 제시했다. 2017년 7월 14일 1심 재판부는 "광주시가 조합에 83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양측이 불복, 항소했고 지난 2018년 4월 6일 2심 재판부도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양 측은 또 대법원에 각각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적십자사 '사랑의 선물 주머니'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회원들이 9일 오전 광주시 북구 지사에서 열린 연말 이웃 돕기 '사랑의 선물 주머니' 제작 행사에서 희망풍차 결연세대 300 가구에게 전달할 선물 주머니를 만들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北, 트럼프 경고에 "우리는 잃을게 없다"

김영철 담화 발표

"격돌 멈출 의지 고민해야"

북한은 9일 김영철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 강하게 반발했다.

(관련기사 8면)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트럼프는 조선에 대하여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며 "우리는 더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영철 위원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에 대해 "참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대목"이라며 "트럼프가 매우 초조해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

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윗을 통해 "김정은은 너무 영리하고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면서 김 위원장이 잃을 것에 대해 "사실상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다.

김영철 위원장은 "트럼프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자기는 놀랄 것이라고 했는데 물론 놀랄 것"이라며 "놀라라고 하는 일인데 놀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안타

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조만간 적대적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이렇듯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여서 또다시 '망령된 늑대'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다시 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며 "격돌의 초점을 멈춰 세울 의지와 지혜가 있다면 그를 위한 진지한 고민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알립니다

호남의 리더
당신을
모십니다



김정은



최진석



전유성



박정자



강원국

고수들의 명 강연... 지역 최고 인적 네트워크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 8기 원우 모집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광주·전남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내년 3월부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 8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를 제

공합니다.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와 해결책을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수강생 여러분께 호남 최고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의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은 지역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육과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 여러분

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00명
- 지원 자격 :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교육 기간 : 2020년 3월-2020년 11월
-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8시30분 (호형식사 제공)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0년 1월 31일까지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수강료 : 550만원 (부가세 포함)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70

光州日報社

이홍재의 세상만사 ▶ 2면

돈 없어 아이 못 낳는 난임부부들 ▶ 6면

굿모닝 예방-크리에이터 시대 ▶ 18·19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똑똑똑 청년일자리 Job Cafe

취준생을 위한
핫~플레이스
청년일자리잡카페에서
취업기회 job go~!
취업의 꿈을 펼쳐봐요~

모든 서비스가
무료라고~??

01

추천
꿀팁

면접 정장대여
이력서 사진촬영
면접메이크업

02

스터디룸
SI의면접실
카페공간
도서공간

03

취업스터디
취업아카데미
청년원데이클래스

· 운영 : 월~토, 오전 10시~오후 9시

· 장소 :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34
서광주농협 운천지점 2F
(세정아울렛 부근)

· 문의 : 062-372-5990~1
www.todaktodakjob.com

광주광역시

광주경제고용진흥원